

전남교육청, 독서문화취약기관에 도서 2000권 기증

지난 연말부터 지역청 소속 도서관의 협조 얻어 기부 진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협약, 곡성 길작은도서관 등 선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2일 전남 도내 독서문화취약 기관 5곳에 각 400권씩 총 2,0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체결한 '독서인문교육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이 협약으로 전남지역 독서 활성화 교육지원 및 독서문화 소의 지역의 교육·문화격차 해소 등 공생의 독서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지역청 소속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도서기증이 필요한 기관의 희망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곡성 길작은도서관, 죽곡농민열린도서관, 순천 별빛나루도서관, 사곡지역아동센터, 남양청소년문화의집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기증된 2,000권의 도서는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돌봄, 학생 및 지역민들의 사랑방이 된 마을 작은도서관 등에 비치돼 '책 읽는 전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동

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곡지역아동센터'에 도서 기증을 신청한 이현석 전남교육청학생문화회관 주무관은 "이곳은 여수 도심지와 25km 떨어진 외곽지역이라서, 마땅한 문화 공간이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도서 기증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독서문화취약지역에 희망 도서를 기증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독서문화를 향유하며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별 독서인문교육 업무협약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흥교육청, 학습코칭단 역량강화 연수 및 위촉식 실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맞춤형 교육 위해 학습코칭단 위촉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

칭단 역량강화 연수 및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

단 지원자 1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최종 연수 이수자 9명에 대해 학습코칭단으로 위촉하였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은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한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학습코칭단의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의 동일한 출발점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연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학습코칭단 활동에 대한 개관,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지 기능 촉진을 위한 지도 방법, 작업기역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놀이 등 학습코칭단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장흥=김도영기자

나주도서관, 새봄맞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나주도서관(관장 양창완)은 2024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주요 기술인 AI, 인공지능, VR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인생 다모작과 관련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글작기, 지게차와 같은 현업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48개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

으며, 그림책이랑 동요랑, 오감만족 클레이 등의 유아 대상 강좌부터 창의 로봇 과학, 음악줄넘기, 논리 바둑 등의 학생 대상 강좌, 그리고 CDT 코딩 자격증, 커피 바리스타, 금융특강 등의 주민 대상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학생과 주민의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악기 튜닝, 치어리딩, 줌바댄스, 아코디언,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생활 속 AI 체험, 엔트리 인공지능 코딩, 메타버스 VR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2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njlib.jne.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운영기획과 평생학습팀(☎330-6731)으로 연락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1:1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진로 진학 상담 전문가 초빙, 학생 1인당 상담 강사 1인 배치

광양여자고등학교(교장 주경중)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1,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목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로 진학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 1인당 상담 강사 1인을 배치하여 운영되었다. 학생 48명과 학부모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담을 통해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대학 입학 정보를 제

공하여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OO 학생은 본인에게 맞는 대입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하여 학업 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말했고 이 OO 학부모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아이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상담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해 준 학교에 감사사를 표했다.

광양여자고등학교장 주경중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소질을 파악하고 그



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 및 대학 전공 선택의 탐색 기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영암도서관, '라이브러리 스타트 독서 운동'

영암도서관(구, 영암공공도서관)은 영암지역 학생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라이브러리 스타트 독서'를 운영한다.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직접 선정한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으로 연령에 따라 1단계(유아, 초1~2학년), 2단계(초3~4학년), 3단계(초5~6학년), 4단계(중1~2학년)로 나뉜다.

라이브러리 스타트 독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2월 22일부터 워크북을 신청한 후 책을 읽고 감상평을 워크북에 작성한다.

작성한 워크북에 사서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받아 채운다. 또, 목표 권수를 달성하면 상품을 지급하며 12월에 완독자는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이벤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